

# 바다 내음이 코끝까지... 부드럽고 깊은 맛 '성계라면'



## 당찬 맛집을 찾아서

<191>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춘희'

시원한 국물에 생면발 맛 일품  
영양 듬뿍 비양도 성계비빔밥  
바삭한 새우튀김·가츠동 별미



맛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가게 내부. 마치 갤러리에 온 듯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끈다.

제주 인심은 성계국에서 난다는 속담이 전해질 만큼 제주에서 성계국은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힌다. 특히 성계는 바다의 호르몬이라는 별칭답게 풍부한 영양소는 물론, 바다의 풍미를 가득 품고 있다. 이런 귀히다귀한 성계를 재료로 이용해 라면을 맛깔나게 끓이는 맛집이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서광춘희'다.

서광춘희는 옛 감골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곳이었다. 가게 내부에는 맛스러운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진열돼 있어 주인장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고, 내부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서광춘희의 메뉴는 춘희면(성계라면), 새우튀김 라면, 새우튀김, 비양도 성계 비빔밥, 가츠동 등 총 다섯 종류다.

성계라면과 새우튀김을 주문했고, 10여분이 지나자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였다.

성계라면은 서광춘희의 시그니처 메뉴다. 오랫동안 끓여 만든 닭 육수에 꼬들한 생면을 넣고 성계 알이 듬뿍 들어간 게 특징이다. 이 외에도 반숙 달걀 반 조각, 가리비, 숙주, 파 등 각종 재료가 푸짐하게 담겼고, 많은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깊은 국물맛은 일품이다. 또 성계라면은 간이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성계가 들어간 탕이 한 모금 들이켜면 국물에서는 제주의 바다 내음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새우튀김은 새우 다섯 마리가 튀김옷을 입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나왔다. 튀김옷 보단 새우살이 통통해서 씹는 맛이 좋았고, 소스로 나온 주인장이 직접 만든 특제마요네즈와 잘먹궁합이었다.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간장에도 찍어 먹을 수 있다. 또한 새우튀김을 성계라면 국물에 푹 적셔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다.

서광춘희에는 성계라면 이외에 시그니처 메뉴가 또 있다. 바로 비양도 성계 비빔밥이다. 성계 비빔밥은 무순과 김, 밥이 들어가고 성계가 스스로 올려져 건강식이 따로 없다. 간을 맞추기 위해 간장과 고추냉이가 나오는데 입맛에 맞게 적당한 양을 덜어 비벼 먹으면 된다.

성계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는 새우튀김 라면과 가츠동이 있다. 새우튀김 라면은 성계라면에서 성계를 빼고 대신 새우튀김을 올려놓았다 생각하면 된다. 튀김이 올려져 국물맛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맛있다. 밥 위에 든가스를 얹은 가츠동은 어린이들의 입맛을 저격했다.

서광춘희에는 음식메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장이 직접담근 청을 활용한 유자차, 청귤차외에 커피, 레몬에이드, 허브차, 홍차, 녹차, 푸지빵차 등 각종 마실 거리가 풍부하다. 차 종류의 가격은 모두 5000원 미만이다. 주소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동로367. 전화 (792-8911).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제주바다와 문학 (41) 강중훈 시 '오조리의 노래'



1989년 촬영된 오조리 포구. 시인 강중훈은 첫 시집에서 오조리 바닷가 4·3에 얽힌 서사를 풀어냈다.

### "소라껍질처럼 빈 가슴으로 오는 봄"

오조리 바닷가 배경 4·3 서사 살기 위해 '잇고 말거다'는 파도소리에 밀려온 무자년

다시 펴든 그의 시집엔 온통 잔내음이 밀려들었다. 바닷(바다)에서 시작해 바닷으로 끝이 난다. 그 바닷엔 제주4·3이 있었다. 책장을 열며 '4·3으로 희생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더불어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의 영전에 삼가' 시집을 바친다고 했던 시인이다.

'내 고향 오조리 봄은/ 바닷에 기 흔자/ 집을 지킨다// 얼마나 외로우면/ 소라껍질에 빨이 뜬는가/ 그 빨에/ 송송/ 젓붙은 어미의 숨비질이 뜨는가// 왜 바닷에 가는/ 아버지란 소리 한번 못 해봤는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반평생/ 호-이 호-이/ 숨비질 소리만 질긴 뜻을/ 말하지 마라' ('오조리의 노래' 중에서)

제주 강중훈 시인의 첫 시집 '오조리, 오조리, 팜팜마을 오조리야' (1996)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바다를 배경으로 4·3에 얽힌 시편이 한 편의 서사처럼 펼쳐진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드리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 시인의 마음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마냥 요동친다.

안개 자욱한 날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해 울리는 무적(霧笛)처럼, 그 때 육친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방도는 없었을까. 대신 그날 '밤에 울면 승시(홍사)난

'는 옆집의 소만 느릿느릿 울었다. 동네 사람들은 앞바다 모래밭에 멈추지 않고 쏘아대던 총성을 들었다. 못 생명들이 스러졌고 '난리 피해/ 너분어 바닷 못 넘고 / 들것에 거죽 씌워져 돌아오셨던 / 우리 아방' ('무적')도 있었다.

1948년 무자년을 파도소리로 불러낸 시인은 오조리 구석구석을 훑으며 가신 이들의 흔을 달랜다. 오조리 잡녀들이 물질하던 바다밭인 너분어와 당머리, 구불구불 이어진 마을 골목 진수막과 생이짓목, 식산봉의 별칭인 바오름, 오조리 바닷가 언덕인 쌍월, 4·3 희생자였던 수마포는 오래전 술한 이들의 희생을 지켜봤을 테니 말이다. 기나긴 억압의 시간은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했지만 남은 이들은 오히려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잇고 말거다' 했다. 눈앞에서 겪은 참사를 떠올려야 하는 일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던지 모른다.

'오조리의 노래' 남은 대목을 마치 옮겨본다. '제주도의 사월 바람이/ 거슬러 날라오는 소리개 외/ 발톱// 돌담 너머/ 수평선 얽힌 시편이 한 편의 서사처럼 펼쳐진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드리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 시인의 마음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마냥 요동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하겠습니다.**

# 보조사업은 대륙과 함께!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확장이전**

**히트상품 이중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성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덩크+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SWISS MADE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농자 대상기종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남원1 300m 위미농협 주유소 위미 예전위치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064) 767-3430